



오 세 정
(전국대 축대 교수)

전망

71년도의 부로일러 산업의 전망에 대하여는 (월간양계 통권 15호, 71년 1월호) 예측한 바대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워 나의 말을 명심하였다 라던 후반기에 큰 격자를 보지않고 파동이 적었을 것이라고 새삼 회고하게 된다.

부로일러 뿐만이 아니라 어느 것이나 남이 수지를 맞추고 좋다고하여 뒤따르면 반드시 격자와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상반기의 생산자 판매값이 선거를 전후하여 좋았기 때문에 7~8월에는 병아리가 모자라 부화장에서는 지나친 호경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9월 부터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락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1kg당 140원까지 떨어져 부로일러 업자는 큰 공황기를 맞이하였다.

해를 넘기면서도 1kg당 180원선을 넘지 못하는 불경기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의 원인을 회고하면

① 환율의 변동으로 사료값의 앙등과 타 물가

1. 불경기의 원인
2. 가격전망
3. 사료수급파동에상
4. 부화장의 생산과잉으로 인한 불황
5. 전용종도 수지맞추기 어렵다
6. 경영과 기술의 고도화 촉구
7. 정부에의 건의사항

지수의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의 진축으로 소비량 감소

② 선거후 정부의 서정쇄신때문에 소비량의 감퇴를 가져왔고

③ 학생들의 데모와 위수령등의 사회적 불안때문에 소비량 감소

④ 은행의 정상화 방안으로 자금의 유통이 악순환을 가져왔고 불실기업의 축출과 부도(不渡)가 많았으며,

⑤ 상반기에 호경기로 지나친 생산과잉을 가져왔고

⑥ 정부의 긴축예산 집행 등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으로 소비성의 위축을 가져오는데다가 생산량의 가속화로 과잉을 가져와 큰 공황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금년도에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전망은 어떠한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필자의 육감과 식견으로는

1. 전반적인 불경기에 처하게 되며 공황기를 면키 어렵다

그 원인을 들고 분석하여 보면

(1) 세계는 무력전쟁에서 경제전으로 치열하게 돌입되었으며 또 그양상도 고도화되고 있다.

말라의 질하와 인화의 질상을 비롯하여 미국의 관세부과, 중공의 UN가입과 경제 침투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외화획득의 감소

우리나라는 월남전으로 인하여 많은 외화를 벌었고 또한 호경기였으나 월남전의 종식과 철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한 미국의 실유류 수입제한을 비롯하여 수출량의 감퇴 및 미군의 일부 철수로 인하여 소비량의 감퇴와 외화획득이 줄어들고 있다.

(3) 중공의 UN가입으로 인하여 아세아지역의 경제적 좌표가 불안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약소국가이며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는 더욱 자국이 크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4) 정부의 건축재정과 세수증대

(5) 서정쇄신과 삼불(三不)추방

(6) 중계도입의 과다

(7) 부화능력의 과잉과 치열한 경쟁

(8) 부로일터 사업의 규모확대 전업화

(9) 외화부족으로 사료도입량의 위축 등

여러가지 외적 또는 내적요인으로 인하여 금년에는 특별한 대책과 개선방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소비성의 감소와 생산과잉이 예상되므로 양계업자의 각별한 자성(自省)이 촉구된다.

혹자는 과거와 같이 지난해 불경기였으니까 또 호경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될지 모르나 이번에는 그러한 과정이 희박하리라고 본다.

그것은 부로일터 사업이 전입화되어 계속 입추되고 있으며 불경기 후에 호경기를 예측하여 약삭 빠른 사람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여 입추를 서둘러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예측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금년에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화장에서는 비싼 중계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생산하는 것을 부화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부화장수의 과다와 시설의 과잉으로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으므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닭고기의 소비성이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이 일반화되지 못하여 유통과 판매과정이 다양화되고 개선책이 이루어 지지 않는한 가장 값이 싸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구득이 불편하므로 소비에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즉 닭고기는 주로 음식점이나 요정에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무원 요정 출입을 삼가하라는 지시만 내리면 그날 부터 닭고기의 소비량은 $\frac{1}{3} \sim \frac{1}{2}$ 로 감소되는 것이 과거의 실례이었다.

그러므로 닭고기의 소비가 일반화되지 않는한 금년과 같은 경제의 악순환을 이루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요인 하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소비량의 감소가 예측된다.

금년에는 수도권 방위가 긴박한 과제이며 내핍생활로 경제건설을 촉구하는 실정에서 양계업자도 지나치게 과다한 경쟁을 삼가하여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지 말것이며 사료도입, 중계도입으로 인한 외화의 손실을 막아야 될 줄 안다.

2. 가을 이후에나 값의 상승이 예상

금년도 가격의 변동은 3~4월에나 가야 kg당 200원선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되어 여름철에는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되며 가을에 가서나 생산의 위축으로 다시 200원선을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태로 나간다면 생산규모, 부화장의 실태, 중계의 도입량등으로 보아서 생산량의 증대에 비하여 소비량의 감퇴의 요인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실정으로 보아서 소비의 위축을 가져올 가망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가에 미달이 되는 불경기가 불가피하다.

그러다가 경쟁이 심하면 실패수룩 생산자의 출혈은 극심할 것이 예상되며 기술의 부족과 경영의 불합리로 도산되든가 중단을 면치 못하는

자가 속출되어 생산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되는 시기가 여름철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그 다음에는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지나친 기우가 될지 몰라도 금년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육감이 되니 각자 과도한 경쟁이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건실하게 내적 충실을 기하여야 될 줄 안다.

3. 사료수급의 파동이

예상된다

근래에 와서는 사료수급의 파동은 없이 가격의 변동만 반복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없는 한 수급의 차질, 즉 도입량의 감축이 예상된다.

71년도의 도입량이 약 47만톤으로 3,500만불이 넘었다고 한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본다면 금년에는 55~60만톤의 물량에다 외화 4,500~5,000만불이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에서는 외환 실정으로 보아서 수요량을 무제한 도입하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도입사료의 90%가 양계사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에 수급이 원활치 못하면 양계업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채린계보다 부로일리에 더욱 극심한 타격을 가져 오게 된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월남이나, 한국에 주둔한 미군으로부터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고 수출이 증대되었으며 외환잔량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순탄치 못한 국제경제와 경제전쟁으로 외화의 확보가 어려우리라 본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정부에서는 무제한으로 사료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못할 것이며 그랬을 경우 파동을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증대하고, 국내의 실정에 맞는 배합료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즉 곡류의 량을 최대한 줄이고 강류나 국내농산물 또는 그의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며 비타민 첨가제는 농사료로 대체하는 10년전의 원시양계로 환원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국내 외환실정과 경제여건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에서도 도리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양계생산물을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나 아직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전지에서나 개인 수지면으로 볼때 우선 사료의 양적 손실을 방지할 것이며 균형있는 배합과 질적손실을 없게하고 국내 자급사료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데 양계업자나 사료공장에서도 최대 노력할 시기라고 본다.

4. 부화장의 생산과잉으로

불황

전국의 부화장 수는 약 350여개소로 추산되며 보유한 부화기 대수는 1,200여대로 그의 생산능력은 약 1,500만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능력으로 보아 약 30%의 가동만 되어도 수요량을 충족하게 되는 것인데 만일 이것이 전부 가동된다면 서로 과도한 경쟁으로 부화업자 스스로가 자멸하게 되며 양계업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기회만 있으면 생산할 수 있는 잠재세력이 너무나 많고 불신의 요소가 되는 것이 너무 많으며 이에 편승되고 이용되는 양계업자가 허다하므로 더욱 불안하다. 앞으로 부실한 부화장이나 불신을 받는 부화장은 자연 도태 정비될 것이며 과도한 경쟁이나 경영의 불합리화는 자멸될 것이니 무모한 경쟁을 삼가하고 자재력있게 수급계획을 세워 생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5. 전용종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

종래까지는 전용종에 대하여는 그런대로 수익성이 좋았으나 금년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지난해 종계의 도입과 국내 육용 종계가 유래없이 많은 양이 확보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새미용 종계도 더욱 많아졌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산량의 증대로 새미용은 물론 전용종도 수요량에 비하여 생산 과잉으로 불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500g 내외를 만드는 난용종의 숫놈영계는 거의 소비가 되지 않으며 더욱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이니 영계용은 아예 특별한 소비처가 확보되지 않는 한 무모하게 기르

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앞으로 점점 영계의 소비는 감소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니 난용종의 응추는 폐지의 사료나 다른 용도로 소비하도록 부화장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6. 알찬 경영과 기술의 고도화가 촉구된다

위에서 여러가지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제와 경제적인 환경 여건으로 보아 소비추세의 감소와 생산의 과잉 요소로 인하여 불경기를 면키 어려워지며 이런 때에 생산체계의 확립과 유통절서체제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전한 양계진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 외상거래를 지양하고 같은 질의 것을 값싸게 현금으로 구입 판매할 것.

생산의 과잉과 치열한 경쟁에는 항상 외상 판매와 외상 구입이 뒤따르게 마련이며 이로 인하여 서로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부화장에서는 병아리를 외상으로 주었다가 회수불능이 되고 사육자는 부로일러를 상인에게 외상으로 주었다가 못받게되며 따라서 사료를 외상으로 주었다가 부도가 나는 일이 불경기 일 수록 많아지게 마련이니 서로 외상으로 인한 불신과 경제적 손실을 보지 말고 신용과 능력으로 현금거래를 할 것이며 절대로 외상계도를 없게 하는 기풍을 세워야한다.

외상은 불신과 경제 파탄으로 자멸을 가져오게 할 뿐이다.

(2) 규모의 확대보다 내적 충실에 힘쓸 것

금년에는 특히 여러가지 여건으로 불때에 힘에 겨운 확대 보다는 자기의 힘과 능력, 기술, 자본 범위내에서 내적 충실로 생산능력을 올리며 생산비를 절감하는 알찬 경영이 요구된다.

(3) 판매사업에 주력할 것

규모의 확대보다는 직매소의 설치로 중간상인에게 이용을 당하던가 지나친 마진차를 없애기 위하여 우선 생산자가 직접 판매에 참여하여야 되겠다.

현재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과정이 복잡하여 생

자산과 소비자의 손실이 너무나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불황을 타개하는 길은 생산자가 직접 소비 판매사업에 참여하여 공급됨으로써 피해가 적으며 유리한 경영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분업화가 되어있어 계통출하와 계약생산 체제가 철저히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 이렇게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현재 가장 아쉬운 것이 생산자이니까 우선 가정침투와 직매소를 증설하여 소비를 촉진하여야 한다.

(4) 소비증대에 주력할 것.

닭고기의 정당한 평가와 영양가치상으로 가장 값싸다는 것을 새로이 인식시키며 구독의 편의 제공, 닭고기 먹는날의 제정, 닭고기의 이용성 증대, 가공처리등으로 소비성을 촉구하여야 한다

(5) 사양기술의 고도화

생산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고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술의 습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한다. 알은 지식과 짧은 경험을 가지고 기술자인 척하는 자만과 고집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 개선하는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7. 정부에의 건의사항

금년도 부로일러 사업이 불황위기에 대처함에 몇가지 사전 건의를 한다던

- (1) 소비증대를 적극 추진하는 홍보활동 강화
 - (2) 사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입사료의 다양화와 품질관리의 철저
 - (3)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을 촉진
 - (4) 외국계 도입의 최대 억제
 - (5) 닭고기 먹는날의 제정
 - (6) 육계안정기금의 확보와 효율적활용
 - (7) 육계 저장고 설치
 - (8) 병아리의 발생수와 소비추세를 수시 예보
 - (9) 닭고기 전문시장을 개설
 - (10) 국내 육종연구소의 시급한 설치
 - (11) 부화장의 시설기준제정의 촉구
 - (12) 방역위생시설을 철저한 수립
 - (13) 생계유통에서 도계유통으로 하도록 지도
- 계몽과 자금의 지원 □□